

6·25전쟁 이전 북한군 정치훈련의 특징과 의미

장성진(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전사학 전임강사)

전쟁 수행에 있어서 물적 요소만큼이나 인적 요소가 중요하며, 이 인적 요소인 정신전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북한군은 625전쟁 이전부터 정치훈련을 진행하였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연설문과 탈북자 증언 등을 통해 정치훈련의 중요성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치훈련 연구는 부족한 편이었다. 따라서 군사적 시각에서 정치훈련에 대한 내용, 과정에 대한 실제적 접근을 통하여 625전쟁 이전 북한군 정치훈련의 특징과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북한군 정치훈련의 내용은 건군, 건당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왔으며,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에 의한 국가관, 스탈린 우상화와 친소반미의 안보관, 그리고 규율 준수를 통한 군인정신 함양 등의 특성을 지닌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훈련국에서 중앙 통제하여 계획하되, 다양한 교재와 방법으로 교육하였으며, 대상 및 시기별 내용도 달리하여 정치훈련이 진행되었다.

북한군 정치훈련은 정치적 목적보다 전쟁의 승리, 전투훈련의 제고, 정신전력의 강화 등 군사적 목적을 추구하였다. 또한 소련의 제도를 토대로 중국의 교리를 수용하고, 북한 고유의 역사를 유지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녔다. 이후 국제관계의 변화로 인해 빨치산 전통은 전술 교리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625전쟁 이전 북한군 정치훈련은 군사적 의미를 지닌 산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주제어: 6·25전쟁, 북한군 정치훈련(정치상학), 정신교육, 김일성, 빨치산 무장투쟁, 군사규정

1. 머리말

정신전력은 중요하다. 전쟁의 본질적이고 영구적인 요소들을 파헤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는 당시 수학적 원리에 의한 교조주의적 태도를 비판하고, 폭력성, 이성, 불확실성이라는 전쟁의 특성 속에서 인간의 감정, 심리 등 인적(人的) 요소를 중시하였다.¹⁾ 아르당 뒤 피크(Ardant Du Picq)도 그의 저서인 『전투연구』를 통해 정신력의 요체가 승리를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다.²⁾ 뒤 피크는 전쟁이 항상 계획된 대로 그 무기를 사용하며 규정에 따라 명령될 수 없으며, 인간의 정신이야말로 전쟁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하였다.³⁾ 이와 같은 정신전력의 중요성 때문에 군대에서는 정신전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국군은 리더십, 정신교육 등을 통해 정신전력을 강화시켜나가고 있다. 북한에서도 6·25전쟁 이전부터 ‘정치훈련’을 통하여 정신전력을 강화시켜, 전쟁에 승리하고자 하였다. 또한 북한군의 정치훈련은 국군의 정신교육에 비해 그 용어에서 보이듯이, 전투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1)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군사사상사』(서울: 황금알, 2006), 99~125쪽.

2) 아르당 뒤 피크, 『전투연구—고대전투와 현대전투』, 국군정신전력학교 육감(국군정신전력학교, 1986).

3) 위의 책, 59쪽.

군사훈련의 일환이었다.

그렇다면 북한은 정신전력의 강화수단인 정치훈련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을까? 정치훈련을 중시하지 않았다면, 정치훈련에 대한 고찰은 그 의미가 없다. 정치훈련의 중요성은 김일성, 김정일의 각종 연설문에 나타난다.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의 창건 열병식’에서 김일성은 “군대 내 강철 같은 규률을 확립하며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신뢰하며 단결하는 정신과 용감하며 솔선 실행하는 정신을 기르며 광범한 정치 사상 교육을 항상 강력히 전개”하는 애국 사상으로 무장하도록 하였고,⁴⁾ 1949년 7월 29일 655군부대 군관회의 시 현 정세는 “무엇보다 먼저 정치사상적 준비를 튼튼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특히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을 강조하고 있다.⁵⁾ 전쟁기간 중인 ‘제3차 전원회의’(별오리 회의)에서도 당 내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을 ‘당 규률의 강화’로 보고 있다.⁶⁾ 전쟁 이후에도 조선인민군 창건 10주년 기념 연설에서 평화적 통일에 대한 옳은 인식을 바탕으로 반당종파분자(김두봉, 최창익)와 군벌사상을 비판하면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을 통한 군인들의 ‘정치사상 교양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⁷⁾ 또한 1960년대에 김정일은 1950년대의 ‘정치교양사업’을 김일성의 ‘유일사상체제’로 전환하였다.⁸⁾ 특히 “정치

4) 김일성, “조선인민군 창건에 즈음하여”(1948.2.8), 『김일성 선집』, 제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535~546쪽.

5) 김일성, “인민군대는 현대적 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되어야 한다”(1949.7.29), 『김일성 저작집』, 제5권, 204~209쪽.

6) 김일성, “현 정세와 당면과업”(1950.12.21), 『김일성 선집』, 제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147~210쪽.

7) 김일성,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이다”(1958.2.8), 『김일성 선집』, 제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3), 308~349쪽.

8) 김정일, “인민군대 당조직과 정치기관들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하여”(1969.1.19),

사상적 우월성이 군사기술적 우세보다 우월”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어서 1970년대에는 ‘유일사상체제’에서 ‘전 군을 김일성주의화하자’라는 사상개조와 사상혁명을 내세우며 ‘김일성주의화’의 수령관으로 이어졌다.⁹⁾ 이후 김정일은 대대의 쌍기둥이 대대장과 정치지도원이며, 군인들 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계속 교양하고, “사상무장과 우리식 전법을 구사하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하면서 정치훈련을 강조하고 있다.¹⁰⁾ 이외에도 탈북자의 증언 등에 의하면 정치훈련의 결과로 정신전력이 강화되었다고 평가된다.¹¹⁾ 따라서 북한의 정치훈련은 단지 형식적인 과정과 절차가 아닌 중요한 훈련의 과정이었으며, 정신 전력 강화의 한 수단이었다.

이와 같이 정치훈련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훈련에 대한 연구는 제도적 접근이 주를 이루었다.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소련군 정치제도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룬 연구,¹²⁾ 전쟁 기간 정치훈련 주무부서의 변화와 그 성격에 대한 연구,¹³⁾ 정치간부와 군사간부의 갈

『김정일 선집』, 제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415~425쪽. “혁명군대의 위력은 정신사상적 우월성”이고, 이의 기본은 “유일사상체제”이며, 이런 유일사상체제는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수령의 교시와 당의 정책을 홍보하며, 학습 기풍을 조성하고 비판의 방법 등으로 조성할 수 있다. 또한 당의 유일사상체제는 인민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강화할 때 사회에 대한 유일사상체제도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 9) 김정일, “전군을 김일성주의화하자”(1975.1.1), 『김정일 선집』, 제5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쪽.
- 10) 김정일, “현시기 인민군대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 앞에 나서는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2006.10.3), 『조선인민군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2006).
- 11) 북한군은 기본적으로 조국 보위를 영예로운 의무로 생각하며 정신적·기술적·육체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정연, 『북한군에는 건빵이 없다?』(서울: 플래닛미디어, 2007), 44쪽.
- 12)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1945~1961)』(서울: 선인, 2005), 273쪽.

등과 이해관계에 대한 연구 등이다. 이와 같이 단편적인 접근이 이루어진 이유는 북한군 자료의 접근이 제한적이며 훈련에 대한 실체적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훈련의 군사적 의미보다는 북한정치체제의 수립과정에 주목함에 따라 정통성 수립이라는 정치적 의미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치훈련에 대한 제도적 접근에서 한걸음 나아가 군사적 시각에서 정치훈련의 내용과 과정을 이해하는 실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정치훈련에 대한 실체적 접근을 통하여 정치훈련의 특징과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 범위 및 방법은 해방 이후 6·25전쟁 이전까지 시기로 한정하여 당시 주요 각종 교범, 서적, 월간 출판물 및 노획문서 등 북한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본 논문을 통해 북한군의 정치훈련이 단순한 정치적 논리에 의한 산물이기보다는 북한군의 군사력 증강 및 전술 교리에 기여한 군사적 의미를 지닌 산물임을 밝히고자 한다.

2. 북한군 정치훈련 내용의 특징

북한군 훈련은 ‘전투정치훈련’으로 진행되었다. 즉 두 가지 측면인 ‘정치훈련’과 ‘전투훈련’으로 나누어 시행되었다.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기준 교범과 교재가 필요하다. 북한군의 전투훈련의 기준 교범은

13) 김광수는 1950년 10월 2일부터 14일 사이 문화훈련국을 총정치국으로 개편하고 11월초부터 정치교육을 강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김광수,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발전(1945~1990),” 북한대학원 편,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서울: 한울, 2006); 김일성, “인민군대내에 조선로동당 단체를 조직할 데 대하여”(1950. 10.21), 『김일성 저작집』, 제6권, 145~152쪽.

1948년도에 총참모부 번역과에서 소련군 교범을 그대로 번역한 『야전규정』이었고, 정치훈련의 기준 교재는 북한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민족보위국 문화훈련국에서 작성한 『정치상학교재』이다. 북한군은 소련의 괴뢰군적 성격을 지니기보다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소련군의 군사 관련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맹목적인 수용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한반도 역사와 지형에 맞추어 이를 적용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이런 노력은 정신교육교재라고 할 수 있는 『정치상학교재』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야전규정』은 1948년도에 번역되어 군사 부분에 대한 기준 교범으로 정착된 반면, 『정치상학교재』는 당시 시대적 상황 및 여건에 따라 각기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전쟁 직전 1950년 5월에 발간된 『정치상학교재』(종합판)로 핵심 과제를 집대성하였다. 기준 교재인 『정치상학교재』와 정치훈련 관련 문헌들에서는 북한군 정치훈련의 내용상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 그 공통된 특징은 건군, 건당의 역사 속에서 정치훈련이 진행되고,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강조하며, 스탈린에 대한 이상화와 함께 친소반미의 안보관 교육을 하고, 규율을 준수하도록 강조한다는 점이다.

1) 군(軍), 당(黨) 그리고 정치훈련

북한군 정치훈련은 건국과 건당의 역사와 함께 그 궤도를 같이하며 보완, 발전되었다. 정치훈련의 중요성은 북한군 초기 창설과정에서부터 나타난다. 군 간부 양성소였던 평양학원의 주된 교육(러시아어, 정치사상, 군사교리)과 교육의 주목적(정치간부, 군사간부, 소련군 연락요원 양성)을 고려한다면 평양학원에서부터 정치훈련은 중요하였다.¹⁴⁾ 그리

고 1947년 보안간부훈련소 보안간부훈련소에서 발행한 『정치교재』에 서도 정치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서언에서 “조선인민군의 근본과업은 조선인민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하여 노력하며 조국의 국가적 이익을 진정으로 고수”하는 것이고, 이 과업을 위해서는 “군사 학리(軍事學理)”와 “전투적 기술”과 “부대의 조직성”, 그리고 “전 대원의 정치적 경각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군사정치훈련사업에서 군 정치식을 높일 것”을 요구하며, 장교(군관)의 정치훈련 중요성을 언급 하고 있다.¹⁵⁾ 1947년 이전까지는 중요성을 인식하였다면, 1949년에는 각종 교재와 간행물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정치상학교재』의 경우 1949년 1월부터 발행되기 시작하여 41권 이상이 출판되었고, 1950년도에는 6월 이전까지만 해도 31권 이상이 출판되었다.¹⁶⁾ 또한 또 다른 정치교육의 참고자료인 『선전원수책』도 1947년에는 12호까지 연 1회 발행되었으나, 1949년도 후반부터 민족 보위성 문화훈련국에서 월 3회 발행되며, 그 내용도 1947~1948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¹⁷⁾ 이는 북한군이 1948년도까지 창설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면, 1949년 이후에는 비약적으로 전투력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¹⁸⁾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와 같이 북한군 정치훈련은 북한군 창군의 발전과정에 맞추어서 전쟁 준비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왔다.

1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전쟁사』, 제1권(서울: 국방부, 1977), 676쪽.

15) 보안간부훈련제2소 문화부, 『정치교재』, 3쪽.

16) 교재 49~41은 1949년도 41번째 교재임을, 교재 50~31은 1950년도 31번째 교재임을 뜻한다. 정치상학교재 목록은 본 논문의 부록 참조.

17) 『정치상학교재』 발간 목록과 『선전원수책』 내용은 본 논문의 부록 참조.

18)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전략, 작전지휘 및 동맹관계” (서울: 북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70쪽.

또한 북한군의 정치훈련은 지속적으로 당의 역사 그리고 사상교양 사업과 함께 발전되어 왔다. 먼저 북한군의 정치훈련은 당의 사상교양 사업의 추진과 같은 궤도를 따라 추진되었다. 군사교양을 위해서는 먼저 장교(군관)들에 의한 ‘레닌주의’에 대한 정치적 각성이 있어야 한다.¹⁹⁾ 즉, 각 개인의 정치적 각성을 통해 개인의 의무를 실행하여, 중국적으로 승리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교양이며 ‘소련의 당 조직 쇄신 방법’이다. 그런데 1948년 8월 합당 당시 노동당의 당원은 36만 6천 명이었는데, 1년 후인 1947년 8월에는 7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는 당의 질적 저하라는 문제를 가져왔다. 이 문제 해결은 소련계(허가이)에 의한 ‘당 조직 쇄신 접근방식’과 연안계(김창만, 허정숙)에 의한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인민의 사상교양사업)이 추진되었다.²⁰⁾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은 모택동식 ‘대중노선’을 북한에 적용한 것이며, 단적인 예로 군중에 접근하여 한 덩어리가 될 것을 강조한 모택동의 방법을 김일성이 ‘당 사업’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다.²¹⁾ 그런데 이와 같은 당 사업 방식은 양적으로 팽창하는 북한군 내부에서도 반영되어 군의 사상교양사업이라는 정치훈련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로 인해 1949년 이후 군의 정치훈련이 새로운 차원인 『정치상학교재』(총합판)에 초급 지휘관에 의한 정치교양사업 방법이 제시되면서 ‘대중노선’을 건계 되었다.

19) 여기에서 ‘교양’이란 “일정한 세계관을 알려주며 옳은 도덕관을 수립하게 하며 좋은 성품과 성정을 양성함에 있어 사람에게 정신상 영향을 주는 것”이며, ‘군사교양’은 군인에게 ‘정치적 각성’을 높이고, ‘과업을 명확하게 인식’하여 ‘정의(正義)의 사업’임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군인의 의무(義務)를 끝까지 실행토록 하여 전시에 조국을 위하여 용감하게 투쟁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안간부훈련제 2소 문화부, 『정치교재』, 4~6쪽.

20)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3~203쪽.

21) 위의 책, 202쪽.

정치훈련은 당의 교양사업의 일환임과 동시에 당의 역사인 김일성 지도체제와 연계된다. 북한 김일성지도체제는 일제하 항일무장투쟁 으로부터 배양되어 1945년 10월 중순 창출되었으며, 1946년 2월 김일성의 정권 장악과 함께 그 원형이 성립되었고, 1947년 3월에 이르면 마침내 당, 정, 군 및 사회단체에서 유기적으로 작동될 수 있었다.²²⁾ 즉 북한 권력구조는 김일성을 선두로 1930년대 초반부터 항일 무장투쟁을 통해 결속된 세력집단을 핵심으로 6.25전쟁 이전에 이미 형성되었다. 따라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강조하는 역사는 김일성 수령체제와 주체사상 이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는 정권 전력의 근간이 되어 시대 흐름에 따라 강조되면서 정착되어 갔다. 이런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에 대한 강조가 정치훈련의 또 다른 특징이 되었다.

2)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통한 국가관 형성

북한군의 정치훈련은 북한군의 특성과 김일성에 대한 이상화 그리고 항일무장투쟁의 역사를 연결시키는 국가관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지금까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전통이 북한 체제의 역동성을 설명하는 핵심 변수임은 국내외 학자로부터 큰 연구 성과가 이루어졌다.²³⁾

22) 김광운, 『북한 정치사 연구 1—건당·건국·건군의 역사』(서울: 선인, 2003), 749쪽.

23) 서대숙은 김일성에 대한 객관적 연구로 동북항일연군과 유격대 업적을 서술하였고, 와다 하루키는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에서 각종 문헌 및 구술 자료를 통해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무장투쟁에 대한 객관적인 역사를 복원하는 데 노력하였다. 하루키가 밝힌 바와 같이 김일성이 만주 항일무장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과 1930년대 말 조선과 중국의 유격대에서 주요 지도인물이었음은 명백해졌다. 반면 서동만은 북한군(조선인민군)이 김일성의 항일무장투

하지만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역사가 국가 건설의 과정이 아닌 군 전투력 건설의 측면에서 정치훈련에 반영된 점은 주목되지 않았다. 그런데 정치훈련 교재에서는 군(軍)의 특성, 기원을 김일성의 항일무장 투쟁의 역사와 연결하고 있다. 대표 서적인 『정치상학교재』(종합편)에서는 인민군대가 “김일성 장군이 만주에서의 반일빨치산부대의 불멸의 공훈은 민족해방투쟁사상에 빛나고 있고, 김일성 장군 빨치산부대의 혁명적 애국심과 그의 전략전술과 투쟁경험에 의한 빛나는 군대”임을 강조하고 있다.²⁴⁾ 즉, 북한군이 역사적으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골간으로 창설되었음을 강조하여 군인으로 하여금 김일성 개인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하고 있다. 또한 항일무장투쟁의 역사는 김일성 우상화 과정과 연계되어 나타난다. 군(軍) 내부에서 김일성 우상화는 적어도 1948년 이전부터 진행되었다. 1940~1950년대 김일성에 대한 호칭은 장군이었으며, 스탈린에 대한 호칭은 대원수였다. 김일성은 초기부터 군대를 철저히 장악하였고 이는 초기 권력형성기에 있어서 김일성그룹의 권력의 근간이자 골간이었다.²⁵⁾ 예를 들어 1946년 5월

쟁의 전통을 표방하는 군대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암스트롱은 유격활동 중에 보인 탁월함으로 김일성은 북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유격활동 경험에서 형성된 태도들 역시 북한정치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1930년대 만주에서의 유격대 경험은 1945년 이후 반식민지투쟁의 산물로 이어졌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같이 항일무장투쟁 전통이 북한 체제의 역동성을 설명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서대숙,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주석 옮김(서울: 창계연구소, 1989); 와다 하루키,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이종석 옮김(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2);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1945~1961)』; 찰스 암스트롱, 『북조선 탄생』, 김연철·이정우 옮김(서울: 서해문집, 2006); 이종석, 『조선로동당 연구』(서울: 역사비평사, 1995) 참조.

24)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정치상학교재』(종합편, 1950), 47쪽.

25)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제2권-기원과 원인(서울: 나남출판, 1996), 692쪽; 와다 하루키,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307쪽; 스텝키 마시유키,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유영구 옮김(서울: 중앙일보사, 1994), 60쪽.

경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선전부장 김창만은 김일성을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모택동과 같은 조선의 ‘영도자(당수)’라고 추대하였다.²⁶⁾ 1948년 총참모부 역사기록참모였던 최태환은 ‘인민군역사 기록부’의 첫 페이지를 “김일성 장군의 항일유격대 정신을 본받아 …… 민족의 군대, 인민의 군대를 창설”하였다고 썼는데, 이는 당시 보안간부훈련소 등의 여러 기록과 메모, 당 선전문이나 교양에서 항일유격대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하였다고 밝혔다.²⁷⁾ 이와 같이 북한군은 1948년 이전부터 김일성 우상화 과정과 함께 김일성 항일유격투쟁에 대한 정치훈련을 진행하였다.

김일성 우상화와 항일유격투쟁에 대한 교육은 김일성 개인의 역사를 다룬 다양한 역사서적을 통해 확인된다. 이런 성과로는 김일성 항일유격투쟁 업적에 대한 역사화를 본격화한 『력사제문제』,²⁸⁾ “김일성 장군의 략사”의 내용을 다룬 『정치교본』,²⁹⁾ 1949년 ‘조선력사편찬위원회’에서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역사를 다룬 『조선민족해방투쟁사』,³⁰⁾ 1945년 해방 이후 김일성의 행적과 연설에 따른 당시 현대사를 다룬

26)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66~167쪽.

27) 한상구, “최태환의 증언,” 379쪽.

28)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262쪽.

29) 『정치교본』 RG 242, SA 2009, Box 8, Item 32.

30) 장세운, “해방 직후 북한학계의 민족해방운동사 인식과 편찬,” 『한국사학보』, 제18호(2004), 203쪽. 역사연구의 필요성과 역사연구에 있어서 ‘맑스-레닌적 학습’에 대한 내용으로 단군신화에 대한 부정, 조선사회의 정치체도와 19세기 말의 조선정치경제와 ‘갑오전쟁(1893)’, 김일성의 탄생과 ‘김일성장군빨지산운동’ 그리고 군당위원장 연설(1948.6.1)로 이어지는 『조선인민의 해방투쟁사』는 개인이 작성한 메모식 교안이 발견된다. 이는 아마 고대에서 현대사에 이르는 역사의 중요성을 인식한 1948년경 작성한 메모가 아닐까 고려된다. 즉 1948년 경부터 이미 역사의 중요성과 맑스-레닌의 방법론 그리고 김일성 중심의 현대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인민의 해방투쟁사』, RG 242, SA 2007, Box 10, Item 58.

『해방후조선』³¹⁾ 등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정치상학교육을 위한 교재로, 즉 “학습중대강의를 위한 정치훈련제강”이기도 하였던 『정치교본』에서는 김일성의 ‘혁명적 가계’ → ‘혁명운동의 시초’ → ‘반일무장투쟁’ → ‘민주조선 건설’의 단계로 개인 역사를 설명하면서,³²⁾ 이 개

31) 『해방후조선』은 1950년 이후 1953년 이전에 발간된 문서로 노획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해방후조선(강의요강)』 RG 242, SA 2009, Box 7, Item 22. 이를 자필로 옮겨 적은 『해방후조선』 RG 242, SA 2007, Box 10, Item 62가 있다. 이외에도 내무성 보안 간부학교에 발행한 『해방후조선』(1-3분책) RG 242, SA 2010, Item 32 등이 대표적인 강의안이다. 이 강의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인학습장이 발견된다. 예를 들면 고춘만, 『해방후조선』 RG 242, SA 2009, Box 7, Item 142; 립춘재, 『해방후조선』(1948), RG 242, SA 2009, Box 4, Item 403; 필자 미상, 『해방후조선』(1950.7) RG 242, SA 2007, Box 10, Item 57; 필자 미상, 『해방후조선』 SA 2012, Item 4-135; 필자 미상, 『해방후조선』(1950.8) RG 242, SA 2007, Item 47 등이 있다.

32)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① 혁명적 가계는 부친(김형직 의사), 숙부(김형권), 아우(철주, 영주) 모두 애국투사였음을 강조하였고, ② 혁명운동의 시초는 육문중학교 졸업 이후 임이공청 가입(1926년), 중국공산당 가입(1931년)에 대해 다루고 있다. ③ 김일성의 반일무장투쟁은 중국과의 국제적 단결 밑에 진행되었으며, 당시 반일유격대와 반제동맹청년의용군, 생산유격대, 부녀단체 등의 비밀항일단체를 조직하였다. 이후 독일과 이탈리아의 침략이 강화되자 소련이 주도적으로 국제에 등장하게 되고, 이에 호응하여 1935년 조국광복회를 조직하였다. 당시 10대강령을 내세워 회장으로 추대되었으며 조국광복회는 국내 함경도, 평안도, 강원도 일대 정치공작원을 파견하고, 동시에 만주항일련군에서 제2군사장으로 있다가 1937년도에 제2군장으로 활약하였다. 보천보 전투, 장교봉 사건 등의 항일유격대 투쟁으로 국내의 모든 반일민족해방 투쟁의 주류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④ 민주조선 건설은 “쏘베트군대의 피의 대가”로 해방되었으며 1945년 11월 17~18일 제3차분극확대집행위원회, 1946년 2월 8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탄생되었고, 3월 5일에 토지개혁 강령, 3월 23일 20개 정강을 발표하였다. 20개 정강은 조국광복회의 10대강령의 계승이며 이 정강을 기초로 6월 24일 노동법령을 발표하였다. 1946년 11월 3일 역사적 처음으로 민주주의적 선거가 시행되었고 1947년 2월 21일에는 김일성 장군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탄생하였다. 1947년도부터 계획적인 인민경제계획이 수립되었고 1948년 5월 10일 단선과 관련된 구국투쟁, 1948년 8월 25일 최고인민회의의 선거가 실시되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김일성 장군을 초대내각수상으로서 수립되었다.

인 역사 때문에 “국토완정의 위업을 달성할 것”이라고 결론 맺고 있다. 즉, 김일성 개인의 역사는 개인의 역사가 아니라 북한 국가의 역사이고, 김일성 개인의 정통성은 곧 북한 국가의 정통성과 일맥상통하고 있으며, 김일성을 따르는 삶은 곧 국가통일의 길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조선민족해방투쟁사』는 이론무장을 위한, 즉 정신전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치교재로 출판되었다. 이 책은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김일성 장군의 빨치산 운동”과 “위대한 소련군대의 결정적 역할”, 그리고 “중국인민과의 친선관계”를 중심으로 “미제”와 “이승만역도배”들에 대한 “민주투쟁의 역량을 제고시키는 이론무장의 참고자료”를 희망하는 ‘김일성종합대학’의 ‘특수강의’ 자료의 모음집이다.³³⁾ 이 서적은 1949~1950년 동기 전투정치 훈련기간에 신입대원 교육요강에서 “김일성장군은 조선인민의 수령이다”의 참고문헌이 되었고, 1950년 하기 전투정치 훈련기간에 “일본 제국주의 기반으로부터 조국의 해방을 위한 조선인민들의 투쟁”, “일본강점자를 반대한 김일성장군 유격대의 영웅적 투쟁”의 참고자료가 되었다.³⁴⁾ 즉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정치교육의 참고교재로 활용되었다. 정치교육은 대부분 제6장의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병(兵) 및 간부에 대해 진행되었다. 하지만 최창익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심도 있게 다루면서도 조선의용군에는 무정, 박효삼, 박일우, 조선독립동맹에는 김두봉, 최창익 등이 속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용군과

33) 김일성종합대학, 『조선민족해방투쟁사』(1949), RG 242, SA 2007(Beach FEAF 65, Item 7), pp.5~7.

34)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1949~1950년 동기 전투정치 훈련기간 정치상학 교육요강』(1950), No 2010, Box 5, Item 117;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1950년 하기 전투정치 훈련기간 정치상학 교육요강』(1950.5), No 2010, Box 5, Item 116 copy 2.

함께 조선독립동맹을 거의 동일 수준으로 부각하였다. 이런 책의 특징 때문에 1956년 8월 ‘종파사건’ 이후 연안파와 고려파가 숙청되면서, 최창익 등의 편찬주도자들이 숙청되어 이 책은 거의 폐기처분되었다.³⁵⁾ 이 책을 통해서 전쟁 이전부터 김일성의 무장항일투쟁이 강조되기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창군시기부터 오직 김일성의 무장항일투쟁만 교육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역사 서적 이외에 대표적인 정치훈련 교육재료인 『근로자』에서도 김일성 개인의 역사와 항일유격전쟁의 전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³⁶⁾ 예를 들어, 강건은 북한군을 김일성의 항일유격전쟁과 연결시키는 논문을 작성하였고, 이승엽은 현 남한 내 빨치산 활동을 과거 김일성의 항일유격전쟁과 연결시켰다. 먼저 강건의 논문에서는 북한군이 소련의 원조와 빨치산 전통을 계승한 인민의 군대이며, 김일성이 마르크스-레닌주의 정치교양사업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항일유격대에서 빛나는 승리를 할 수 있었다고 하며 김일성 개인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³⁷⁾ 또한 이승엽은 전쟁 이전 남한 지역에서 수행한 유격대 활동까지도 “김일성 장군의 항일유격투쟁의 전통”이라고 연계시키고 있다. 그는 1949~1950년 남한의 ‘동기 토벌’

35) 장세윤, “해방 직후 북한학계의 민족해방운동사 인식과 편찬,” 203~204, 241~242쪽.

36) 『근로자』는 정치훈련의 주 교육 재료 중 하나였다. 예를 들어 1950년 하기 전투정치 훈련기관 정치상학에서 “일본강점자를 반대한 김일성장군 유격대의 영웅적 투쟁”과 “조선인민군은 해방된 조선인민의 군대이며 그의 리익이 충실한 방위자이다”는 『근로자』, 제2호(1950)를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1949~1950년 동기훈련에서도 “인민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적 발전”은 『근로자』, 제22호(1949), “김일성장군은 조선인민의 수령이다”는 『근로자』, 제2호(1950) 등을 참고문헌으로 하고 있다.

37) 강건, “김일성 장군 항일 유격부대는 조선 인민군의 전투적 골간이다,” 로동신문사, 『근로자』, 제2호(1950), RG 242, SA 2007.

을 완전 실패시킨 ‘남반부 인민 유격대’의 승리 이유를 김일성의 항일 유격투쟁의 전통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³⁸⁾ 이외에 내무성 문화국에서 발행되는 『보위신문』에서도 김일성의 무장투쟁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강조된다. 예를 들어, 6월 28일 1면 “김일성 장군 항일인민유격대의 전통을 계승한 우리인민의 무력은 실로 무적하다”와 “김일성 장군의 항일인민유격부대의 애국전통을 유감없이 발휘하라” 등의 표현은 김일성의 빨치산 무장투쟁을 북한군의 전통으로 삼아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표현이었다.

이와 같이 북한군 정치훈련과정에서의 국가관 교육은 김일성 개인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이를 무장항일투쟁의 역사와 연결하고, 이를 다시 ‘국토완정’의 길로 연결시킨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역사’와 ‘정치’의 결합이 북한 정치과정의 큰 특징이며, 김일성이 항일빨치산 투쟁이라는 민족해방투쟁 전통에서 ‘공식성’을 확보함으로써 군(軍) 내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³⁹⁾ 동시에 이는 소(小)스탈린화 과정이기도 하다. 북조선로동당창립대회(1946.8. 28~30) 시 김두봉, 무정, 오기섭, 박병서, 박정애 등이 김일성을 로동당의 지도자로 추대하며 ‘소(小)스탈린’ 형성 과정과 유사하게,⁴⁰⁾ 군(軍)에서

38) 남한에서는 후방사단을 중심으로 겨울이라는 계절적 특성을 활용하여 인민과 유격대를 먼저 분리시키고, 북한의 유격부대에 대한 섬멸 전술로 이어지는 작전을 시행하였지만 호남, 지리산, 태백산, 영남 유격지구에서 완전 실패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 첫 번째 승리 이유는 바로 “김일성 장군의 장구한 반일 유격투쟁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소련 군대 무력에 의해 해방된 이후 “민주건설 성과에 고무 격려”되었기 때문이며, 셋째는 “맑스-레닌주의의 선진 과학사상”의 기초이고, 마지막으로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원호” 때문이라고 하면서 김일성의 항일유격투쟁과 연계시키고 있다. 리승엽, “원수들의 ‘동기도발’을 완전 실패시킨 영웅한 남반부 인민 유격대와 그들의 당면 임무,” 『근로자』, 제6호(1950).

39)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48쪽, 279쪽.

도 김일성 개인의 역사를 강조한다. 김일성의 무장항일투쟁 역사를 강조한 국가관 확립으로 달성하고자 한 것은 ‘국토완정’이었다. 즉, 통일을 위한 군사력 건설 과정 일환이 김일성의 역사와 항일무장투쟁의 역사를 동일시하여 정통성을 확립하고, 확립된 정통성을 바탕으로 정의의 전쟁을 수행한다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투쟁 외에도 건국의 과정에서의 정통성 확립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또한 김일성의 소(小)스탈린화는 스탈린 우상화로 이어져 북한군 정치훈련의 또 다른 특징이 되었다.

3) 친소반미의 안보관 교육

북한군의 정치훈련의 또 다른 특징은 소련, 중국에 대한 우호감, 미국 그리고 일본에 대한 비판을 통해 소련, 중국과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한 점이다. 먼저 『정치상학교재』에서는 군대의 필요성과 정치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중국과 소련의 사례로 설명하고 있다.⁴¹⁾ 중국의 경우 인민무력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하였고, 소련의 경우 레닌, 스탈린 등이 군대 창설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군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시 독일과 미국은 민족의 우월성을 추구하였지만, 소련은 높은 도덕성으로 승리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정치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소련군은 미군과 다르게 점령군이 아닌 해방군임을 강조하고 있다. 1949년 동기전투정치훈련 정치상학교재 제2권에 의하면 제2차 세계대전은 “스탈린의 지도하에 영웅적인 조국애호전”이

40) 위의 책, 176~177쪽.

41)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정치상학교재』(종합편), 1~4쪽, 24~27쪽.

었으며, “일본제국주의 잔재요소를 철저히 소탕하며 조선인민의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확보하며 원조할 목적”으로 한반도에 진주한 해방군이며, 북한의 국가 건설에 기여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⁴²⁾ 그리고 제1권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앙정부 수립을 정당화하고 남한 내 삼척탄광 파업(1947.6.10), 대구 총파업(1947.10.1), 10월 인민항쟁(1947.10.2), 2·7구국투쟁(1948.2.7), 제주도 항쟁(1948.4.3) 등은 “조국을 미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먹으려는 반동파들과의 투쟁에서 자주독립 국가수립을 위한 조선인민들의 지향”이라고 선전하며,⁴³⁾ 미국을 비판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치상학교재』 49-17, 18, 20과 50-4, 7, 18, 31 등은 모두 친소반미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친소반미의 안보관은 『정치교본』, 『조선민족해방투쟁사』, 『해방후조선』 등 역사서적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정치교본』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채택과 그 내용”,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반부 인민경제 부흥발전을 위한 1949~1950년 2개년 계획의 실행정형”, 소련군대가 해방의 군대이며, 군사과학의 우월함을 나타낸 “쏘베트 군대는 새 형태의 군대이다”, “남조선에 있어서의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에서의 노동당의 역할”, 일제패망에 대한 소련의 결정적 역할과 소련의 원조 및 조소 경제 및 문화협정체결(1949.3.17) 등을 다룬 “쏘련은 조선인민의 민족적 국가적 리익의 시종일관한 옹호자이다” 등 북한의 국가건설과정을 합리화하고 친소반미의 안보관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⁴⁴⁾ 또

42) 내무성 문화국, 『정치상학교재』, 제2권, 동기 전투훈련기간(하사관 및 전사조, 1949.12), Batch 97, Item 15.

43) 내무성 문화국, 『정치상학교재』, 제1권, 동기 전투훈련기간(하사관 및 전사조, 1949.12), Batch 97, Item 15.

44) 『정치교본』, RG 242, SA 2009, Box 8, Item 32.

한 『조선민족해방투쟁사』의 제7장에서도 소련군대의 역할을 다루고 있다. 제1절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독소전역(소독전쟁)에서 소련의 ‘국제 반팻쇼전선’이 형성되고, 일본의 태평양 전쟁 발발에 대한 시대적 배경을 소련의 시각에서 평가하였다. 제2절에서는 “쏘련을 주력으로 한 국제 반팻쇼전쟁의 승리적 총결”로 독일이 패망하고 약소민족이 해방되었으며, 일본제국주의도 패망하면서 조선민족이 해방되었다고 보았다. 즉 소련의 전쟁을 “일본제국주의는 위대한 쏘련군대에 의하여 조선으로부터 구축(驅逐)되었으며 최후의 패망”으로 이어지게 한 “피압박민족해방을 위한 정의(正義)전쟁”으로 간주하였다. 또 다른 역사서적 『해방후조선』 제5, 6장에서도 미제국주의 식민지 정책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의 투쟁’과 ‘남조선괴뢰 “정부”수립을 반대하는 조선인민의 투쟁’의 내용을 각각 다루며 미국을 비판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친소반미의 안보교육은 북한 국가 수립의 정당성과 연계되며, 우호국의 원조, 그리고 정의의 전쟁을 수행하는 국제역학관계를 고려한 당연한 결과이다. 하지만 친소반미의 교육 속에서 스탈린에 대한 이상화는 또 다른 문제이다. 스탈린 이상화는 정치훈련의 교육집이었던 『근로자』, 『선전원수책』 등의 논문에서 확인된다. 강건은 소련의 원조에 있어서 “스탈린은 맑스-레닌주의적 군사과학의 최고봉이며 완성자”라고 하며, 스탈린 개인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⁴⁵⁾ 그는 소련의 북한에 대한 원조와 소련의 군사과학을 스탈린 개인으로 상치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스탈린의 군사과학은 북한군의 『군인선서』에도 반영되었다.⁴⁶⁾ 이외에도 스탈린에 대해서는 “레닌의

45) 강건, “김일성 장군 항일 유격부대는 조선 인민군의 전투적 골간이다.”

46) 예를 들어 군인선서에는 “쏘베트 군대의 스탈린적 군사학을 성심으로 연구하며, 그의 이론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이 선진적 백전백승의 과학을 연구하며

영구적 사업의 천재적 계승자이며, 현대의 위대한 령장인 스탈린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이며 위력한 쏘베트 군사과학을 창조했다는 김일의 견해와⁴⁷⁾ 소련군대는 레닌, 스탈린에 의하여 창건되었으며, 군사과학의 원칙적 기초 구축과 전략적 예비, 군사기술의 기초에 관한 지시 등으로 “쏘베트 인민인 그의 위대한 령도자 스탈린의 지도하에 용감히 투쟁하였으며 대승리를 거두었다”고 보는 림해의 주장⁴⁸⁾ 등 스탈린 개인에 대한 영웅화 과정이 진행되었다. 김일성도 각종 연설문을 통해 스탈린을 중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스탈린 개인의 이상화는 김일성 개인의 이상화를 위한 매개체로 활용함과 동시에 스탈린 개인에 대한 북한의 의존성을 보여준다. 먼저, 김일성 개인의 이상화 과정과 연계시켜 생각할 수 있다. 스탈린을 김일성과 상치시킨 이유는 김일성의 지도하에 투쟁하여 승리하기 위함이다. 즉 “쏘베트 군대의 위력은 볼셰위끼당의 교양, 현재의 위대한 령장 스탈린의 교양을 받고”⁴⁹⁾ 있는 것처럼 북한군의 위력도 당과 김일성의 지도를 통해 강력해짐을 강조하기 위해 스탈린의 이상화 과정

배왔기 때문에 우리 인민군대는 현대 작전을 능숙히 진행할 수 있는 전투력이 강한 부대로 되고 있다”고 하여 스탈린적 군사학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강건, 위의 글, 24~25쪽 참조.

- 47) 김일, “프로레타리아트 독재 시기에 있어서의 무력의 강화에 대한 레닌-스탈린의 학설,” 『근로자』, 제2호(1950), 28쪽.
- 48) 림해, “쏘베트 군대의 백전백승의 위력—쏘베트 군대 창건 32주년에 제하여,” 『근로자』, 제4호(1950).
- 49) 리기석, “쏘베트군대는 새 형태의 군대이며 전 세계 인민의 친선과 평화를 도모하는 군대이다,” 『근로자』, 제2호(1950), 80쪽. 이외에도 스탈린의 연설 내용을 언급하며 스탈린의 소련 군대에 있어서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김일성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립 1주년 연설문인 “우리의 해방군인 쏘련군과 쏘련 인민과 쏘련정부와 그의 수령인 위대한 스탈린 대원수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의 내용, 『스탈린 전집』 등의 출판물을 보면, 김일성 역시 스탈린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진행된 것이다. 즉, 스탈린에 대한 우상화는 김일성 우상화를 위한 매개체였다. 또한 북한이 소련 국가에 대한 의존보다는 스탈린 개인에 대한 의존이 더 깊었음을 의미한다. 해방 이후 스탈린 관련 출판물은 레닌과 관련 출판물과 함께 소련 문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으며,⁵⁰⁾ 북한의 건국과정뿐만 아니라 6.25전쟁의 원인, 경과, 결과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이는 바로 스탈린이었다. 6.25전쟁은 스탈린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중국의 개입과 조·중 연합사 구성 그리고 정전 협상까지 스탈린은 깊게 관여하였다. 전쟁 수행을 위해서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꼭 필요한 존재였고, 그에 대한 의존 역시 깊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스탈린 사후(死後), 전쟁 이후에 스탈린 호칭이 북한 문헌에서 제일 먼저 삭제된다.

4) 규율 준수를 통한 군인정신 함양

북한군 정치훈련 내용상의 마지막 특징은 각종 과업의 제시와 군사규정, 기율 등의 규율을 준수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군인정신을 함양하고, 전투력 강화에 기여한 점이다. 규율에는 김일성의 지시(군의 과업, 임무 등), 군사규정, 그리고 군기확립을 위한 ‘기물규정’ 등이 있다. 먼저 김일성의 지시에 대한 부분이다. 김일성의 대표적인 지시는 조선인민군 창설식 행사에서 제시한 북한군 5대 과업이다. 그 내용은 첫째, “군사과학을 습득하며 군사기술을 더욱 련마”하여야 하며, 둘째, “정치사상적 리론수준을 높이며, 선진적 과학사상으로 무장하여 고상한

50) 당시 스탈린 문헌에 대한 개관은 김광운, “북한 정치체제 형성 관련 1945~1950년 출판물에 대하여,” 정영욱 외, 『해방 전후사 사료연구 II』(서울: 선인, 2002), 162~172쪽 참조.

도덕성을 소유”하고, 셋째, “자각적 규률과 부대 내 질서를 엄격히 준수”하고, 넷째, 국가비밀과 군사비밀을 엄수하고, 다섯째, 국가재산과 군대재산 애호를 제시하고 있다.⁵¹⁾ 이와 같은 5대 과업은 북한군 10대 준수사항으로 이어지게 된다. 1970년대에 정치사업을 통해 북한군을 강화하고자 하였던 김일성은 반드시 지켜야 할 10대 준수사항을 제시하였다.⁵²⁾ 북한군을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치사업, 선전선동사업이 바로 10대 준수사항이고, 1950년대의 5대 과업이다. 또한 군인선서를 통해 북한군의 사명과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8가지를 요구하고 있다.⁵³⁾ 8가지의 내용은 서약 완수, 군사과학 및 군사기술 교육, 정치사상적 이론 함양, 규율 준수, 정직, 용감성, 국가 및 군사비밀 엄수, 군대 재산 애호 등으로 5대 과업과 유사하다. 이는 국공내전기간 모택동의 삼대기율 팔항주의,⁵⁴⁾ 그리고 김일성이 주장한 조국광복회 10대 강령,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20대 정강처럼 군대에서도 5대 과업, 10대 준수사항 등의 원칙으로 군의 방향을 제시

51)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정치상학교재』(종합편), 28~30쪽.

52) 김일성, “정치사업을 잘하여 인민군대의 위력을 강화하자-조선인민군 제7차 선동원대회에서 한 연설”(1977.11.30), 『김일성 저작선집』, 제7권(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78), 418~425쪽. 10대 준수사항은 ① 군사규정 준수, ② 무기 정통 및 관리, ③ 군사명령의 철저한 집행, ④ 당의 과업 집행 철저, ⑤ 국가비밀, 군사비밀, 당 조직 비밀 엄수, ⑥ 법과 질서 준수, ⑦ 군사정치훈련 참가, ⑧ 인민에 대한 사랑, ⑨ 국가재산과 군수물자 보호, ⑩ 상하일치단결된 미풍 조성.

53)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정치상학교재』(종합편), 62~73쪽.

54) 삼대기율은 “모든 행동은 지휘에 따른다, 군중으로부터 바늘 하나 실 하나라도 취하지 않는다, 모든 노획품은 공으로 돌린다”이고, 팔항주의는 “말은 친절하게 할 것, 매매는 공평하게 할 것, 빌린 물건은 반드시 돌려줄 것, 파손된 물건은 반드시 배상해 줄 것, 사람을 욕하거나 때리지 말 것, 농가를 훼손시키지 말 것, 부녀를 희롱하지 말 것, 포로를 학대하지 말 것”이다.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군사사상사』, 278~282쪽.

하고 있다. 이외에도 김일성의 명령, 내무상 명령(381, 403호) 민족보위상 명령(285호) 등은 전투수행을 위한 명령으로 강조되었다.

군사규정에 대한 강조는 정치적 수단으로 군벌 관료주의자를 처벌하는 명분이 아니라, 군대의 생명이며 전투력의 원천인 군인정신을 함양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김일성은 6·25전쟁 초기 전쟁 패배 이후, 1950년 12월 21일 조선로동당 제3차 전원회의(속칭 별오리 회의)에서 초기 전투에서의 교훈, 그리고 당의 결함 중 하나를 “강철 같은 규율의 미약”으로 보았다.⁵⁵⁾ 규율은 군대의 생명이며, 전투력의 원천이다. 『정치상학교재』에서도 규율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군의 군사규정은 “스탈린이 작성한 군사규정을 지침으로 한 위대한 역량이며, 가장 선진적인 군사사상이 구현되었고, 조국과 인민이 군대에 대한 지시이므로 상황에 따라 창의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군대 법률”이다.⁵⁶⁾ 이와 같은 군사규정에는 보병전투규정, 내무규정, 위수근무규정, 군사규률규정 등이 있다.⁵⁷⁾ 보병전투규정은 현대대전진행의 질서를, 내무규정은 군대 조직과 질서를, 위수근무규정은 보초, 호송자 및 지휘자의 의무를, 군사규률규정은 군대의 규율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를 각각 취급하였다. 규정에 대한 강조는 김일성의 연설에서도 나타난다. 김일성은 1950년 3월 14일에 38선과 해안, 국경, 철도, 그리고 국가의 중요시설물을 수호하고 있는 경비대 군인에게 위수근무규정 준수를 강조하였고,⁵⁸⁾ 또한 그해 5월 12일에는 ‘중국해방전쟁’에 참가하고 입

55) 『김일성 선집』, 제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147~210쪽; 서대숙 편, 『북한문헌연구: 문헌과 해제』, 제4권 대외관계 군사 및 안보(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4), 147~210쪽.

56)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정치상학교재』(종합편), 119~126쪽.

57) 위의 책, 125~132쪽.

58) 김일성, “현정세와 경비대의 과업,” 『김일성전집』, 제11권(평양: 조선로동당출

북한 제4보병사단 18연대와와의 담화에서 정규군답게 군사규정과 함께 내무규정을 따르도록 지시하였다.⁵⁹⁾ 경비를 강화하는 위수군무규정, 정규군 부대의 훈련교범이 되는 보병전투규정, 그리고 전투경험은 우수하지만 상하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제18연대에게 기강을 확립하도록 하는 내무규정 등은 전쟁 이전 훈련을 통해 형성된 전투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민족보위성 총참모부는 1949년도에 『기율규정(紀律規程)』을 출판하였다.⁶⁰⁾ 제1장 총칙에 의하면 군기는 “전체 군인이 엄정하게 준수하여야 할 법령과 군사규정으로 규정된 규칙과 질서”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보위에 대한 매개군인의 군사적 의무와 책임감의 자각성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군인들의 군사규정의 요구와 상관들의 명령 및 지령에 대해 어떠한 곤란이라도 극복해서 수행해야 하며, 국가비밀과 군사비밀을 엄수하고, 군사과학을 연구하고 인민의 재산과 군대재산을 애호하며, 군인의 존중성과 예절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장교(군관), 병사, 하사관에 대한 기율징벌과 상관 및 하관에 의한 기율징벌권, 기율징벌 질서와 집행절차, 표창과 표창권, 신고(申告)와 청원(請願), 명예심판 등 군인의 준수사항에 대한 징벌과 표창에 대한 절차를 다루고 있다. 북한군이 6·25전쟁 발발 직전 집결지에서 병사들에게 강요된 것은 무기와 장비의 관리, 그리고 비밀엄수, 사기 유지, 철저한 검열 등이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준수해야 할 것은 비밀의 엄수였다.⁶¹⁾ 이와 같은 군사기밀 유지와 군사

판사, 1995), 231쪽.

59) 위의 글, 363~367쪽.

60)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족보위성 총참모부, 『기율규정』, 1949년 출판, 소재지는 제2대대 6중대 2소대 리영옥이며, 1950년 11월 4일 노획한 자료이다. RG 242, SA 2009, Box 8, Item 97.

기술에 대한 부분은 단지 전쟁 발발 직전의 현상은 아니었다. 평소 정치훈련을 통해 군인으로서 국가 및 군사기밀 유지와 군사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런 정치상학에 의한 훈련은 전쟁 발발과 함께 그 효과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3. 북한군 정치훈련 과정의 특징

지금까지 북한군 정치훈련 내용이 군과 당의 역사 속에서 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의 내용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내용상의 특징이 실제 정치훈련에서 계획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으로 전반적인 진행경과에 반영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먼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서부터 국제역학 관계 그리고 군인정신과 연관되는 각종 규율까지 방대한 양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였다. 이 전문가가 어떤 과목을 어떤 시기에 교육해야 할지는 사전에 선정하였다. 그리고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방법과 자료가 필요하였으며, 또한 교육 대상별, 시기별 그 내용과 방법도 고려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특징이 북한군 정치훈련 과정에서 나타났다.

1) 엄격하게 통제된 훈련 내용

북한군 정치훈련이 다른 훈련과 다른 점은 정치훈련에 대한 주무부

61) 박명립,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1권-결정과 발발(서울: 나남출판, 1996), 396~399쪽.

서가 정해져 있고, 그 주무부서에 의해 통일된 내용으로 교육된다는 것이다. 전술훈련의 경우에 각 병과별 특성에 따라 교과목과 편성시간이 다르며, 각 부대별 임무에 따라서도 그 내용은 변화된다. 그 훈련 내용은 일정한 훈련지침인 『전투훈련강령』이 있지만, 과목 내용과 시간은 사단~대대 계획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⁶²⁾ 하지만 정치훈련의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에 의하여 하달되며, 그때 발간되는 서적이 바로 『정치상학교재』이다. 또한 주무부서는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으로 정해져 있다. 물론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외에도 1947년 보안간부훈련소 문화부, 1948년 조선인민군총사령부 문화부, 1950년 내무성 문화국, 1950년 8월 조선인민군 전선총사령부 문화훈련국 등의 명칭이 발견되지만, 그 명칭만 변화되었을 뿐 정치훈련의 주무부서는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으로 유지되었다. 정치교육 진행자 역시 정해져 있다. 정치교육 진행자인 ‘상학지도자’는 부대 명령에 의해서 임명되며, 상학지도자는 정치교육 이전에 적어도 2일 전 2~4시간 연대(대대) 단위 세미나를 하도록 되어 있다.⁶³⁾ 이와 같이 교육 계획과 교육 진행자 교육에 대한 통일된 내용으로 문화훈련국을 통해 엄격한 중앙 통제가 이루어졌다.

중앙에 의한 통제와 그에 따른 교육은 각종 증언이나 정치훈련 계획에서도 확인된다. 먼저 교육자가 정해져 있었다. 최태환의 증언에 의하면, 장교들에게는 문화부에서 나온 ‘지도원’이 소련공산당사를, 일반 병사들은 ‘문화 부중대장’이 항일유격대 투쟁사를 학습시켰다.⁶⁴⁾ 또한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의 『정치상학 교육요강』에서는 북

6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보위성 총참모부, 『보병부대 전투훈련강령』, 제 1부(민족보위성 군사출판부, 1949). 이 서적은 육군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음.

63) 위의 책, 17~18쪽.

한의 정통성과 관련되는 5가지 주제에 대한 메모식 교안과 참고문헌을 제시하면서 통일된 방식의 정치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⁶⁵⁾ 또한 1950년 1, 2월 시행된 하사관 정치훈련에서도 중앙에서 통제된 교육이 그대로 하급부대에서 진행됨을 알 수 있게 한다.⁶⁶⁾ 예를 들어, 당시 문화부 계획에서는 1월 4일(월)과 6일(수)은 08:00~10:00까지 “김일성 장군의 빨치산 투쟁”에 대해서 교육하고, 1월 4일(월) 10:00~11:00에 “1950년 김일성 장군 신년사”에 대한 시사보도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부사관 교육을 받고 있던 교육생(무전을 담당하는 학생 6, 7조)은 1950년 1월 4, 6일에 08:00~10:00까지, 7일(토)에는 08:00~09:00까지 문덕환의 강의로 문화부 계획에 의하여 정치교육을 받았다. 이와 같이 부대여건에 따라 날짜의 변동은 있지만, 당시 계획된 일주일에 5~7시간의 정치교육과 시사교육은 문화부의 계획대로 정치훈련 전문가(예를 들어, ‘문덕환’)에 의해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통일된 내용에 따라 주무부서와

-
- 64) 한상구, “한국현대사의 증언: 6.25와 빨치산—팔로군 출신 방호산 사단 정치보위부 최태환의 증언,” 『역사비평』, 통권 4호(1988), 376쪽.
- 65)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1950년 하기 전투정치 훈련기간 정치상학 교육요강』 (1950), RG 242, SA 2010, Box 5, Item 116 copy 2.
- 66) 『하사관조 상학계획』, RG 242, SA 2007, Item 22. 1, 2월 계획과 각 과정별 주차별 계획이 작성되어 있다. 1월 상학계획을 살펴보면, 4, 6일은 “김일성 장군의 빨치산 투쟁”, 9, 11일은 “쏘베트 군대는 일제의 기반으로부터 해방시킨 해방자”, 13, 16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사회구조와 국가기구”, 18, 20일에 “공화국 북반부에 있어서 국가주권기관과 집행기관”, 23, 25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공민의 권리와 의무”, 27일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주권기관과 선거제도”, 30일에 “국가적 인민경제 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전 인민적 투쟁”을 교육하고, 시사보도계획으로 1월 4일에 “1950년 김일성 장군 신년사”, 11일에 “공산당 보도국회에 관한 김일성 장군의 보고”, 18일에 “레닌은 피압박 민족의 해방자이다”, 21일 “조국전선 호소문”, 28일 “조선인민들은 강력한 무력을 갖고 있다”로 구성되어 있다.

상학지도자(문화부 지도원, 문화부중대장)를 편성하는 엄격한 틀을 갖추고 있다. 이는 북한군의 정치훈련 내용이 역사관에 입각한 국가관 및 안보관 교육 그리고 각종 규율 등 방대한 양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정해진 일련의 계획에 의해서만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동일한 교육 내용으로 진행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이었다.

2) 다양한 정치훈련 방법과 자료

북한군 정치훈련 계획은 통제되지만, 정치훈련의 방법과 자료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정치훈련 방법에서 『정치교재』에서는 먼저 교육자의 정치적 각성을 중시하였다. 정치적 각성 이후 모범, 보고, 강연, 정치 담설(談說) 등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⁶⁷⁾ 『정치상학교재』(종합편)에서는 정치적 각성을 한 초급지휘관(하사관 특무상사)에 의해서 병에 대한 대중회를 피하는데, 그 방법에는 모범을 보이거나, 밀접한 대화, 신상필벌, 군인선서에 대한 실천 등이 있다.⁶⁸⁾ 이와 같이 장교와 부사관은 자습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각성해야 하고, 병의 경우에는 장교와 부사관에 의한 대화, 모범, 시범 등을 통해 정치훈련을 고양하였다. 장교와 병의 정치훈련 방법이 다른 것처럼 자습 및 교육을 위한 정치훈련 자료도 각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제시되었다.

정치훈련은 정해진 정신교육 주제만의 방법으로 진행되지는 않았다. 『정치상학교재』에 정해진 주제 외에도 “시사보도(時事報道)”라는 시사안보교육도 진행되었다. 시사보도는 “병사 및 하사관들에게 국내

67) 보안간부훈련제2소 문화부, 『정치교재』, 3. 군관은 부하에 대하여 선생이며 교양자다, 7쪽.

68)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정치상학교재』(종합편), 111~120쪽.

정세와 국제적 관계의 중요한 사건을 인식시키고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내각결정 및 민족보위상의 명령을 해명(解明)하며, 또한 그 부대, 구분대의 전투 및 정치생활의 당면한 난문제(難問題)를 해결”할 목적으로, 정치교육이 없는 날 1주일에 3회씩 30분씩 중대단위로 실시하였다.⁶⁹⁾ 시사교육 내용은 국내외적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소련 관련 보도 혹은 김일성의 연설문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시사교육 내용은 잡지인 『근로자』, 『선전원수책』 그리고 각종 신문에 소개되어 있다.

다양한 훈련방법에 따른 훈련자료도 개인 학습자료로부터 잡지, 신문 등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정치적 각성을 스스로 자습을 통해 작성해야 할 선전원의 정치훈련 길잡이는 잡지인 『근로자』, 『선전원수책』 등이었다. 『근로자』에는 정치훈련뿐만 아니라 당 관련 제반 논문이 실린 반면,⁷⁰⁾ 『선전원수책』은 선전원의 교육 자습서로서 좀 더 사용되었다.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선전선동부에서는 1947~1948년도까지 월간 『선전원수책』을 발행하고 있으며, 1949년도에는 북조선로동당 중앙본부 선전선동부 군중선동과에서 2월 15일 발행된 제1호 이후, 2월 20일에 제2호, 3월 8일에 3호를 발행하였다. 이후 이 책자는 1949년도 후반부터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에서 월 3회 발행하며 정착되었다. 『선전원수책』은 선전원들의 출판물 이용방법, 군중선동사업 방법, 선거 시 선전원의 역할, 정치훈련 성과에 대한 확장 대안, 『선전원수책』 이용 방법, 초급 선전원의 역할 등 선전원에 의한 사업방법과 역할 그리고 정치훈련 확장 대안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일반 병사의 정치훈련은 신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신문

69) 『보병부대 전투훈련강령』, 제1부, 16쪽.

70) 정치훈련 자료에 사용된 예는 각주 36번 참조.

은 ‘노동신문’, ‘보위신문’, ‘조선인민군’, ‘승리를 위하여’ 등 다양하다. 예를 들어, 보위신문 7월 23일 제1면에서는 “가장 강력한 선전선동적 및 조직적 무기의 하나”가 출판물이며, 그중에서도 신문임을 강조하고 있다. 전쟁기간 중에는 정치교육 강화를 위하여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가일층 강화할 데 대한 내무상장 명령 381호 및 403호”를 신문을 통해 하달하였고, 보위신문 8월 27일 해방지구관 제1면에는 “전쟁과 관련하여 발표된 김일성장군의 보고문 연설 최고사령관 명령을 비롯한 정치적 주요 문헌들과 내무상의 중요 명령들을(명령들에 대하여) 반드시 특별학습을 조직하여 연구”하고 이외에도 “신문을 비롯한 서적 출판물”과 “리승만반동통치의 결과”에 대한 “사상투쟁”을 전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정치교육의 교재가 김일성 연설 및 신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각종 신문을 통하여 정치훈련이 진행되었으며, 그 내용에는 김일성의 연설과 김일성의 빨치산 무장투쟁에 대한 부분이 많이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맹자를 위해서 혹은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군중문화사업’이 진행되었다.⁷¹⁾ 중대에 노래를 보급하여 전투력을 고취시키거나, 무용을 창작하고, 희곡을 보여주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내무성 극단에서는 1949년 6월의 은파산전투를 소재로 은파산전투 시 보여준 경비대 군인들의 용감성, 영웅주의, 군민일치의 사상 등을 전파하기 위해 제작된 연극 <은파산>을 1950년 2월에 공연하였다. 김일성도 당시의 연극이 북한군의 “정치도덕적 우월성”을 보여주어, “우리 군대의 우월성을 잘 형상”하였음을 강조하였다.⁷²⁾ 또

71) 이 글 부록#1의 1950년 3월, 『군중문화사업 참고자료』, 제1집 참조.

72) 김일성, “연극 <은파산>을 보고 일군들과 한 담화(1950년 2월 27일), 『김일성 전집』, 제11권, 147~150쪽.

한 1953년에는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정찰병>이라는 전쟁영화를 통해, 냉전주의 속에서 당과 수령 그리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소위 북한이 규정하는 ‘영웅주의’를 반영하였다.⁷³⁾ 이와 같이 문맹인에게 쉽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신문, 잡지 외에도 노래(군가), 연극, 영화 등의 ‘군중문화사업’을 활용하였다.

3) 각 계급별 정치훈련 진행

통일된 내용의 중앙통제가 실시되었지만, 모든 장병에게 동일한 내용의 교육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1949~1950년 동계훈련 『간 정치상학 교육요강』에 의하면,⁷⁴⁾ 장교(군관)에 대해서는 국가관, 부사관의 경우 계급과 국가의 기원,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 노동당의 역할, 노동당의 특징, 신입대원은 김일성 수령, 미 제국주의 비판, 그리고 공통과제로 국제 공산주의 운동, 유고슬라비아 비판, 미국·이승만 정부 비판, 국군 비판, 충실한 전투준비 등에 대해 각각 100분간 교육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1950년 하계훈련 『정치상학 교육강령』에서도 계급별로 상이한 훈련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⁷⁵⁾ 하사관에 대한 정치사상교육은 조국해방 관련 투쟁(24H), 북한의 정통성(38H), 소련(24H), 국제문제(80H) 등 총 116시간으로 편성하였다. 신입대원은 군사교육(42H), 북한의 정통성(32H), 소련군대의 우수성(20H), 소련(8H),

73) 장용훈, “<정찰병> 본격 전쟁영화의 서막,” 『통일한국』, 제17권 제2호(1999), 90~91쪽.

74)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1949-1950년 동기 전투정치 훈련기간 정치상학 교육요강』(1950), RG 242, SA 2010, Box 5, Item 117.

75) 조선인민군 제181군부대 문화부, 『1950년 하계 전투정치 훈련기간 정치상학 교육강령』(1950), RG 242, SA 2010, Box 5, Item 116, copy 1.

대내의 정책문제(32H) 등 총 134시간으로 편성하였다. 특히 신입대원 군사교육의 내용은 『정치상학교재』(종합편)의 내용과 동일하다. 따라서 『정치상학교재』의 내용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여 정치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후 국가관과 시사 안보교육을 각 계급별로 상이하게 진행했다고 볼 수 있다.

전시 신설부대 병사들의 정치훈련도 전쟁 이전 정치훈련과 다르게 진행되었다. 이는 제315부대 문화부 지령으로 내려진 신설부대 정치훈련 명령을 통해 확인된다.⁷⁶⁾ 교육내용은 “김일성 장군의 호소문은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전투적 강령”(3시간), “리승만 매국역도들은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수”(1시간), “조선인민군은 해방된 조선인민의 군대이며 그의 리익의 방위자”(1시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2시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권은 조선인민의 창에 의하여 창건된 정권”, “국방군은) 우리 조국을 식민지화 하려는 미제의 침략적 살인도구”, “쏘련은 조선인민의 민족적 및 국가적 리익의 시종일관한 옹호자”(1시간), “이승만 매국도당과 미제를 반대하는 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조국의 통일과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 “군인선서는 군무자들로부터 무엇을 요구하는가”(2시간), “진정한 애국자들은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견결히 투쟁”, 마지막으로 “일상적 전투준비와 경각성은 우리의 강력한 무기”라는 12개의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외정책(1시간)”은 삭제하였고, “조선인민군대는 김일성 장군 항일유격투쟁의 애국적 전통을 계승한 군대이며 선진군사 과학

76) 로동신문 6월 27일과 7월 8일부를 참고하여 교육한 것으로 보아 6·25전쟁 초기 7월 중순 이후 신설부대에 대한 정치교육 내용으로 보인다. 제315부대 문화부, 『지령: 신설부대전사들정치상학교육제강』, SA 2010, Item 101.

과 애국적 사상으로써 무장된 강력한 군대”라고 하며 김일성의 항일 유격투쟁이 북한군 형성의 주요 기반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설부대 병사의 경우 북한군과 군대에 대한 국가관, 군대관, 군인정신을 함양하고, 6·25전쟁이 정의의 전쟁임을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교육하고 있다. 정치훈련은 전시에도 진행될 만큼 군사적으로 그 의미가 컸다고 볼 수 있다.

4. 북한군 정치훈련의 군사적 의미

지금까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정치훈련이 진행되었는지 살펴보았다.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전통은 북한 체제의 역동성을 설명하는 핵심적 요소이고, 북한군 정치훈련과정에서도 김일성에 대한 영웅화 및 이상화 작업이 진행됨을 고려해 볼 때 전쟁 이전부터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의 역사는 체제의 정통성 수립과 군대 내 김일성의 입지 강화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치훈련을 단지 체제 수립과 정통성 확립이라는 정치적 시각에서만 바라본다면, 정치훈련의 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간과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군 정치훈련의 목적과 성격 그리고 전술교리상의 관계를 통해 정치훈련의 군사적 의미를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1) 정치훈련의 목적

6·25전쟁을 앞둔 북한군의 정치훈련은 단순한 정권 확보 차원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무형의 전투력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

의 일환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북한군 내부에서의 정치훈련은 단순한 이념교육, 사상개조교육에 그치지 않는다. 이념교육, 사상개조, 혹은 정치교양 등은 훈련으로 보이지만, 정치훈련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군사적 목적인 전쟁 승리에 기여하고, 전투훈련에 기여하며, 규정 준수를 강제하기 위함이었다.

정치훈련은 전쟁 승리, 즉 ‘국토완정’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예를 들어, 『보위신문』 8월 12일 1면에는 “그리하여 매개일꾼들로 하여금 미제국주의 약탈자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과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희생적인 애국주의 사상과 필승의 신념을 주입하며 우리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 장군에 대한 두터운 경애심과 신뢰심을 고무추동하여 줌으로써 종국적인 전쟁승리를 향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고 하였다. 즉, 정치훈련을 통해서 진행된 친소반미의 안보관, 그리고 김일성 우상화를 통한 국가관 확립의 목적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이었다. 스탈린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것처럼 북한도 김일성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승리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스탈린에 대한 우상화와 함께 김일성 우상화가 진행되었다. 또한 친소반미의 안보관은 북한이 수행하는 전쟁이 민족해방투쟁인 ‘정의의 전쟁’임을 부각시킴으로써 전쟁에 더욱더 쉽게 뛰어들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정치훈련을 통해서 병사들로 하여금 ‘영웅주의’를 표방하도록 하였다. 민족의 과제인 ‘국토완정’의 길에서 군인답게, 용감하게 목숨을 걸 수 있는 군인정신을 함양토록 하였다. 이와 같은 북한의 ‘영웅주의’는 각종 정치훈련 교재, 잡지, 신문 혹은 군중문화사업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⁷⁷⁾ 따라서 전쟁 이후 김일성의 우상화가 주체사상으로 변용되었을

77) 예를 들어 부록#2의 『선전원수책』에 의하면 1950년 4월의 ‘위대한 쏘베트 군대의 영웅들 소개’와 1950년 5월 ‘백림 공격전투에서의 영웅적 붉은 군인들

지라도, 전쟁 이전의 정치훈련은 군사적 목적인 전쟁 승리를 위해 진행되었다.

정치훈련은 또한 군사적 목적인 전투훈련 향상을 위한 것이었다. 정치훈련에서는 교양을 강조한다. 교양이란 “정한 세계관을 알려주며, 옳은 도덕관을 수립케 하며, 좋은 품성을 함양함에 있어서 정신상 영향을 주는 것”이며,⁷⁸⁾ 군인들에게 올바른 정치적 정신 함양, 북한군의 목적과 과업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군인다운 성격(충명성, 인내성, 결단성, 용감성, 준비성) 등의 군사교양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양을 통해 얻고자 하는 성과는 결국 군사훈련을 도와주게 하는 것이다.⁷⁹⁾ 즉, 정치훈련도 훈련의 일환이다. 이는 정치훈련에서 강조하는 규정의 품목을 보면 훈련을 향상시키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투규정’은 북한군의 교범인데, 이 교범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전투훈련을 잘하도록 하는 것과 같다. 또한 ‘위수규정’을 통해서도 상시 전투경계태세를 완비하도록 교육하고, ‘내무규정’과 ‘기물규정’을 통해서도 상명하복, 신상필벌에 의한 군대질서를 유지하여 임무를 달성할 수 있는 군 기강을 확립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치훈련은 군사적 소양을 통해 전투훈련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전투훈련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투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정치훈련은 규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전쟁 이후 김일성은 그의 반대세력을 ‘군벌 관료주의자’라는 명분으로 숙청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 이전 그리고 전쟁 기간 중에 강조된 규율의 내용을

의 이야기’ 등이 있으며, 각종 전시 신문에서도 전투에서 승리에 기여하거나 목숨을 건 영웅의 이야기를 주로 보도하고 있다.

78)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정치상학교재』(종합편), 115쪽.

79) 위의 책, 117~118쪽.

전쟁 이후 정치적 숙청과 같은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전쟁 발발 직전에 왜 규율이 강조되었을까? 또한 전쟁 기간 중인 제3차 전원회의(별오리회의)에서 왜 군사규율이 강조되었을까? 이는 전쟁 이후처럼 정치적 숙청의 명분이 아니었다.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규율에 대한 강조가 필요했던 것이다. 전쟁 초기에는 훈련을 통해 형성된 정신전력 유지를 위해 필요했으며, 별오리 회의에서는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무너진 군대 기강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정신전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규율 준수를 강조한 것이다.

2) 정치훈련의 성격

북한군 정치훈련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투훈련을 강화하며, 정신전력을 고양하기 위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 시행되었다. 반면 정치훈련의 성격은 어떠했을까? 이에 대해 북한군 정치훈련의 성격은 소련군 혹은 중공군의 영향을 받았는지, 혹은 북한군 독자적인 체계에 의한 것인지를 제도, 경험, 그리고 정치훈련의 특징을 중심으로 평가해보고자 한다.

먼저 제도적으로는 북한군의 정치통제시스템이 소련군을 모델로 하였지만, 군 내 당 단체나 세포가 조직되지 않아 당 중앙위원회의 직접적 통제를 받지 않고, 민족보위성 문화부상과 문화훈련국에 위임된 점이 소련군과 다르다.⁸⁰⁾ 그리고 경험에 대해 살펴보면, 북한군의 창설멤버였던 88여단에서의 정치훈련은 모택동의 저술을 학습하면서 소련공산당사, 소련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와 독소전쟁의 상황 및 국제

80)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273쪽.

정세 등에 대해 학습하였다고 한다.⁸¹⁾ 그렇다면 김일성은 소련의 정치훈련제도를 수용하면서도 중국 모택동의 저술에 대한 학습을 정치훈련에 반영할 수 있다. 여기에 지금까지 정치훈련 특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북한군 정치훈련의 특징은 당의 건설과 군의 건설 과정 속에서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런 특징으로 정치훈련 방법에 있어서도 소련의 정치적 각성을 통한 간부교육과 중국 모택동의 대중화 사업의 방식이 동시에 나타났다. 또한 당시 친소반미의 안보관 교육은 소련과 스탈린 관련 서적을 방대하게 번역하였으며, 동시에 중국 서적도 번역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인의 경험 그리고 북한군 정치훈련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북한군 정치훈련은 소련의 제도를 중심으로 중국의 제도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독자적 요소 또한 존재하였다. 이는 또 다른 정치훈련의 특징인, 김일성과 항일빨치산 투쟁과 관련되는 국가관이다. 김일성은 공산주의체제 속에서도 민족주의적 성향을 유지하며, 항일빨치산 투쟁을 통해 역사적 정통성을 확보해 나갔다. 따라서 북한군의 정치훈련은 북한 고유의 정통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소련의 제도를 중심으로 중국의 것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복합적 성격을 지닌다.

3) 빨치산 전통을 군사적으로 활용

북한군 정치훈련은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소련, 중국, 그리고 북한

81) 와다 하루끼,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272~273쪽. 모택동의 서적은 『삼풍정돈의 보고』(1942), 『중국혁명전쟁의 전략문제』(1936)을 학습하였다. 전투훈련은 소련 극동군의 『보병훈련대강』을 기초로 소련장교의 지도하에 총검술, 실탄사격, 전술진공, 방수훈련, 행군연습, 동계야외훈련, 낙하산강하훈련 등에 이어, 1944년 겨울에는 왕신림 감독하에 전술대항연습까지 하고 있다.

스스로의 것이 활용된 것이었다. 그런데 국제관계의 변화는 북한으로 하여금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 하고, 정통성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빨치산 전술을 새로운 교리로 발전시켜 나갔다. 6·25전쟁 이후 1958년 북한에서 중공군이 완전히 철수하자, 북한은 김일성 위상화의 일환으로 ‘1930년대 김일성의 항일유격전’을 모델로 하는 새로운 교리를 정립하고, 과거 소련의 빨치산과 중국의 유격전과의 차별을 시도하였다.⁸²⁾ 이와 같이 북한군의 정치훈련 과목이었던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전통은 비대칭 전력을 구사하는 새로운 교리 발전으로 이어졌다.

북한의 새로운 전술 교리는 소련과 중국의 교리와 항일무장투쟁의 전통에 입각하여 형성되었다. 북한은 레닌의 『빨치산 전투』와 『야전 규정』의 ‘빨치산 운동’ 등을 통해 구소련의 빨치산 전략을 수용하였다. 동시에 모택동의 『항일유격전쟁의 전략문제』,⁸³⁾ 『항일유격전쟁의 전술문제』⁸⁴⁾ 등 중국의 유격전쟁론도 수용하였다. 『남부군』의 저자 이태,⁸⁵⁾ 강동정치학원과 제3군관학교를 나와 북한군이 된 『빨치산』의 저자 이영식,⁸⁶⁾ 그리고 최태환 등의 증언에서도 북한이 중국의 유격

82) 남정옥, “6·25전쟁기 북한의 게릴라전 지도와 수행,” 『전사』, 제6호(2004), 120쪽.

83) 1949년 9월 작성된 『정치학톤논개요』는 유격전쟁의 개념과 항일유격전쟁의 조직문제를 다룬 서적으로 “배우면 싸우고 싸우면 배우자 빛나는 유격대 만세”라는 구호를 보면, 유격대가 휴대한 유격전 관련 교양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서적은 유격전쟁과 정규전을 배합하여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였던 중국의 전략적 방침의 일환으로 유격전쟁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유격전쟁의 전술원칙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도 모택동(毛澤東)의 전략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정치학톤논개요』(1949), RG 242, SA 2010, Box 5, Item 199.

84) 지습용 수검용, 『국문해석법』(동방문화사), RG 242, SA 2008, Box 10, Item 115.

85) 임영태, “한국현대사의 증언: 6·25와 빨치산—『남부군』 이태와 『빨치산』 이영식의 강연과 토론,” 『역사비평』(1988), 339쪽.

86) 위의 글, 342~343쪽.

전을 수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군은 소련의 빨치산 운동에서 정치, 군사적 문제를 조망하고, 중국의 전술적인 기본원칙, 조직 편성, 다양한 전술 방법과 대민관계 등의 전술적 측면을 중국의 유격전 교리에서 수용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모든 전술 교리가 김일성의 무장항일투쟁에 의한 고유의 전략, 전술인 것처럼 교육하고 있다. 이는 김일성의 무장항일투쟁을 통해 국가관을 교육하였던 정치훈련의 영향으로 인해 가능하였다.

5. 맺음말

본 논문은 6.25전쟁 이전 북한군의 정치훈련에 대해 기존의 제도적 접근에서 벗어나 실체적 접근을 통해 그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정치훈련이 정신전력 향상의 수단이라는 군사적 의미를 가정한 상태에서 6.25전쟁 이전 북한에서 발행된 각종 교범, 잡지, 신문 등 노획문서를 중심으로 북한군의 정치훈련이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 특징과 군사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북한군 정치훈련도 국군의 정신교육처럼 국가관, 안보관 그리고 군인정신의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하지만 몇 가지 내용상의 특징을 보였다. 먼저 ‘정치’와 ‘역사’를 결합하는 북한 체제의 특수성과 ‘당’과 ‘군’을 중시하는 공산주의 체제의 특수성에 기인한 건당의 역사, 그리고 건군의 역사 맥락 속에서 정치훈련이 진행되었다. 국가관에 있어서는 국가수립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여러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김일성 개인사를 항일무장투쟁의 역사와 동일시하여 정통성을 확립하고, 그 정통성으로 6.25전쟁이 ‘정의의 전쟁’이라는 명분을 사전

에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내의 정세를 고려하여 진행된 친소반미의 안보관 교육은 정신교육과 시사보도교육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스탈린 영웅화 및 우상화 과정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유리한 여건 조성과 김일성의 소(小)스탈린 현상이 진행되었다. 끝으로 모택동의 ‘삼대기울 팔항주의’처럼 군인으로서 꼭 지켜야 할 ‘5대 과업’ 혹은 ‘10대 준수사항’과 ‘전투규정’, ‘위수규정’, ‘내무규정’ 등의 각종 군사규정과 ‘기률규정’을 통해 군인정신을 함양하도록 하였다.

북한군 정치훈련의 내용상 특징은 실제 훈련과정상에서도 반영되어 나타났다. 소련군 제도와는 다르게 군대 내에 당 단체나 세포가 조직되지는 않아 당의 직접적 통제를 받지는 않았지만,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의 중앙 통제하에 엄격하게 통일된 양식의 교육 과목과 내용으로 훈련이 진행되었다. 교육자는 사전 세미나, 각종 정치교양 서적에 대한 탐독으로 스스로 정치적 각성이 된 상태에서 교육에 들어갔으며, 문화훈련국에서는 이를 철저히 명령으로 관리하였다. 하지만 정치훈련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와 그 방법은 다양하였다. 정치훈련의 기준교재인 『정치상학교재』에서부터 전문가들을 위한 『력사제문제』, 『정치교본』, 『조선민족해방투쟁사』, 『해방후조선』 등의 역사서적, 노동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정치훈련 교육집인 『근로자』, 선전원에게 정치훈련의 길잡이가 된 『선전원수책』 등의 잡지, 그리고 일반 병사들이 볼 수 있는 각종 신문(『노동신문』, 『보위신문』, 『조선인민군』, 『승리를 위하여』 등)과 군가, 연극, 영화 등의 ‘대중문화사업’ 등이 교육에 동원되었다.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각 계급별, 시기별로 각기 다른 내용으로 교육하여 교육성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북한군 정치훈련의 특징을 고려할 때, 정치훈련의 목적은 단지 정

치적 목적인 이념교육과 사상개조교육이 아닌 군사적인 목적, 즉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신전력의 일환이었다. 북한군의 정치훈련 목적은 ‘정의의 전쟁’이라는 명분과 ‘영웅주의’를 통해 전쟁에 뛰어들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였고, 이 정치훈련을 통하여 다른 전투훈련에 기여하였으며, 전쟁 초기 혹은 실시간에 정신전력 유지 및 강화의 수단으로 규율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치훈련은 소련의 제도를 기본으로 하되, 중국의 모택동 사상을 수용하고,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를 고려한 복합적 형태의 성격을 지닌다. 이런 복합적 형태의 성격은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고유의 전통이었던 무장항일투쟁의 역사를 새로운 교리 발전의 기회로 삼았다. 이와 같이 6·25전쟁 이전 북한군의 정치훈련은 정치적 의미보다 군사적 의미가 더 강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훈련의 의미와 중요성 때문에 북한군은 앞으로도 정치훈련을 강조해 나갈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군의 정치훈련이 6·25전쟁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또한 당시 국군의 정치훈련 과정이나 특징과 비교하여 어떤 효과를 나타냈는지를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노획문서를 중심으로 6·25전쟁 이전 북한군 정치훈련의 특성과 의미에 대해서 실체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정치훈련이 북한군의 군사력 증강 및 전술에 기여한,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산물이었음을 밝혔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 접수: 6월 29일 / 수정: 7월 28일 / 채택: 8월 5일

부록#1. 주요 정치상학교재와 참고자료

시 기	내 용	비 교
48.	남조선 단독선거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정치제강
49. 1	1. 조선인민군대의 규정은 군무에 있어서 유일한 법칙이다 2. 평상시에 있어서 위병근무는 전투과제의 실행이다	교재49-7
49. 2	조선인민군의 조직과 목적 및 과업에 대하여	교재49-11
49.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 및 국가기구	교재49-12
49. 4	1949년 3월 30일 지방주권기관 선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거대한 견고성과 완강성의 명백한 담보이다	교재49-?
49. 5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제3차 세계대전의 위험을 반대하는 전 세계 민주주의적 진보적 력량의 투쟁	교재49-17
49. 6	강도미제국주의자들은 인류의 악독한 원수이다.	교재49-18
49. 6	북대서양동맹은 세계제패를 위한 미제국주의의 침략도구이다	교재49-20
49. 7	위대한 조국전쟁 시기에 있어서 쏘베트 무력	
49. 8	쏘베트 군대 력사개관 제1부 (외국 무력간섭과 공민전쟁시기에 있어서의 쏘베트 군대)	
49. 8	쏘베트 군대 력사개관 제2부(평화정세하에서의 쏘베트 군대)	참고자료49-27
49. 11	평화와 안전의 초소에 서있는 쏘베트 무력(김성학)	참고자료49-30
49. 1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사회적 및 국가구조(동기전투, 내무성 문화국)	교재 No. 4
49. 12	김일성 장군의 영웅적 빨찌산투쟁	교재49-37
49. 1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 주권기관과 국가집행기관 (강의: 2, 문답: 2)	교재49-41
49. 12	군사복무를 정확히 집행하며 군사를 성실히 연구하자(강의: 2, 문답: 2)	
50.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법은 조선인민의 민주주의적 법전이다(하기전투, 내무성 문화국).	교재 No. 3
50. 1	새전쟁방화자들의 구라파와 아세아 인민들에 대한 외교정책(내무성 문화국)	교재 No. 9
50. 1	쏘련은 노동자 농민의 사회주의국가이다(강의: 2, 문답: 2)	교재50-4
50. 1	쏘베트국가의 민족정책과 제인민과의 친선(강의: 2, 문답: 2)	교재50-7

50. 1	경각성을 높이며 군대 및 국가비밀을 엄격히 지키자(강의: 2, 문답: 2)	교재50-47
50. 2	쏘련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공산당의 역할(강의: 2, 문답: 2)	교재50-11
50. 3	1. 중대 노래 보급사업에 대하여	군중문화사업 참고자료 제1집
	2. 군무자들의 무용창작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3. 중대 연극씨클의 사업방향과 희곡 창작 및 연출법	
50. 3	제2차 세계대전과 전후 국제무대에 있어서의 항구한 평화와 제인민간의 협조를 위한 투쟁에서의 쏘베트 동맹의 역할(강의: 2, 문답: 2)	교재50-18
50. 4	계급과 국가의 기원(강의: 2, 문답: 2)	교재50-20
50. 6	일상적인 전투준비와 경각성 제고는 우리의 강력한 무기이다.(강의: 2, 문답: 2)	교재50-29
50. 6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법은 조선인민이 처음으로 가지는 민주주의적 법전이다(리태삼).	교재50-30
50. 6	일본의 새로운 군국화는 미제국주의자들의 기본정책이다.(중기중대 문화부중대장 리태삼, 강의: 2시간, 문답: 2시간)	교재50-31

부록 #2. 선전원수책의 주요 내용

제2호 (47.2.22)	북은군대 창립2주년 기념 보고 제강
	삼일운동 이전에 있어서 일반적 정세
	삼팔결과 조선여성
제5호 (1947.5.)	조선에 관한 모스크바삼국외상회의의 결정
	모스크바삼국외상회의의 조선문제결정의 전말(顛末)을 천명(闡明)하는 따스 통신
	경성에서 진행된 쏘미공동위원회사업에 대한 이즈베쓰치야지의 론평
	4월 8일과 4월 15일에 보모 볼로토프 씨와 드마살 씨 간에 조선문제에 관하여 교환된 서륜(書輪)
제6호 (1947.6.)	모로토프 씨와 마살 씨 간에 교환된 서륜(書輪)에 대하여
	북조선의 민주개혁은 조선민주발전의 기본 토대이다
	노동법령 실시 1주년에 제하여 선전원들에게 주는 자료
제7호 (47.7.20)	농업현물세 실시는 북조선 농민들의 생활향상을 보장하였다.
	민주주의입시정부수립에 관한 인민의 요구 천명(闡明)
	새로 수립되는 민주주의 조선임시정부는 어떠한 원칙에 입각하여야 하겠는가
제8호 (47.8.6)	민주주의조선임시정부 수립과 북조선로동당의 주장
	해방 2주년을 맞이하는 북조선인민
	중요생산 국유화 실시 1주년에 제하여
제10-12호 (47.12.28)	조선인민을 스펜코브 대장의 성명을 절대 지지한다
	조선임시헌법 제정에 대하여
	왜 북조선중앙은행권을 새로 발행하게 되었으며 구화폐들과 교환하게 되었는가
1호(1·2월호) (1948.2) *3.10발행	민주선전실을 어떻게 이용할가
	1948년도 인민경제계획 완수를 위한 선전원들의 임무
	조선인민군의 조선인민의 성벽이다
	선전원들은 출판물들을 어떻게 리용할 것인가
No. 8 (1948.10) *10.29 발행	백보사업은 어떻게 강화할가
	쏘베트군대의 철거는 일관된 해방적 사명의 표현이다
	왜놈들을 다시 불러요며 미제국주의자들과 군사조약을 체결하는 남조선매국노들의 최후발악상

제1호 (49.2.15)	당선선전동원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춘기과중준비기에 있어서의 군중선동사업에 대하여
	선전원들의 사업작풍에 대한 몇 가지 문제
제2호 (194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반부인민들에게 고향 (1949년 2월 7일 북조선 민전호소문)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제 실시 준비사업에 대한 선전재료
	화평의 미명하에 국민당반동정부는 무엇을 책동하고 있는가?
제3호 (49.3.8)	도시군 구역 인민위원회 지방주권기관선거실시에 관한 선전 제강
	선거선전사업에 있어서의 당선전원들의 역할에 대하여
	2개년 인민경제계획수립의 의의와 선전원들에게 주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소위 ‘유엔신조선위원회’는 미제국주의자들의 조선에 대한 침략계획을 충실히 리행해주는 사환꾼의 집단이다
선거문답	
제5호 (49.11.10)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32주년 기념
	1949년 11월 6일 모스크바 시쏘베트경축회의에서 진술한 그르말렌 꼬브의 보고
제7호 (49.12.5)	총검열에서 얻은 경험을 살리어 동기전투 정치훈련의 성과를 보장하자
	자체복습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열성자들은 어떻게 사업할 것인가
	우리조국은 위대한 쏘베트군대의 영웅한 투쟁으로 해방되었다
	장성하는 민주력량은 전쟁도발자들에게 매걸음마다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수립은 평화와 민주진영의 일대성과다
	술어해설
나는 왜 의거입북하였는가	
제8호 (49.12.15)	인류의 행복은 위대한 스탈린의 이름과 함께
	쓰딸린 대원수의 간단한 랍사
	인민의 령도자들과 저명한 활동가들의 말씀들
	쓰딸린에의 헌사
제1호 (50.1.1)	김일성 장군의 영웅적 빨찌산 투쟁
	전술훈련의 성과를 질적으로 보장함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
	초급 선전원들의 창발적 사업에 대하여

	조선인민군 전사 림관호 동무에게-남포 체련소 동제련과 종업원 일동이 보낸 편지
	위대한 쏘베트 군대의 영웅들 소개
	나는 왜 의거 입북하였는가
제2호 (50.1.10)	1950년을 맞이하여 공화국 전체 인민에게 보내는 김일성 장군의 신년사
	로동당 중앙위원회 정기 회의에서 진술한 수 개 국 공산당 보도국 회의 총결한 관한 김일성 장군의 보고
	수 개 국 공산당 보도국 회의에 관한 콤포니케
	술어해설
제3호 (50.2.1.)	조선인민군 창건 2주년에 제하여
	조선인민군은 공화국의 견고한 성벽이다
	김일성 장군의 영웅적 빨찌산 투쟁
	김일성 장군이 직접 지도하신 동녕현 시가 전투
	조선 인민군의 혁명적 전통을 수호하며 더욱 빛나게 하자
	위대한 쏘베트 군대의 고상한 정신적 선진적 경험을 배우자
	조선인민의 무장력은 강대한 세계 민주력량의 일환이다
	인민군대와 군무자 가족들에 대한 인민들의 존경과 사랑은 극진하다
	강원도 민청위원장 동무에게-안덕히 소속 구분대 하사 박주삼 동무의 편지
	혁명적 경각성의 제고는 승리의 중요담보의 하나이다
	소위 ‘국방군’은 미 제국주의 강도들의 사술에 매운 악독한 도구다
제4호 (50.2.15)	위대한 쏘베트군대의 탄생
	위대한 쏘베트군대의 특성
	위대한 쏘베트군대는 세계의 평화와 민주의 초소에 튼튼히 서 있다.
	위대한 쏘베트군대의 영웅들 소개
	위대한 쏘련은 우리조선인민들을 어떻게 원조하였으며 또 원조하고 있는가
	쏘련 최고 쏘베트는 어떤 기관이며 어떤 사람들이 그의 대의원으로 선거되는가
제6호 (50.3.11)	하사관들은 전사들의 가장 친근한 교양자다
	어떤 곤난도 우리의 투지를 꺾지 못한다
	쏘중 조약 및 협정과 그의 역사적 의의
	승리하고 있는 월남 민주주의 공화국

	19세기 불란서 로동계급의 영웅적 봉기·파리 쾰무나
	미 제국주의 자들은 왜 일본 천황을 옹호하고 있는가?
제7호 (50.3.21)	쏘베트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적인 제도이다
	쏘련에서의 물가 인하와 루블리 교환률 제고는 자본주의 제도에 대한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의 새로운 시위다
	조쏘 경제 및 문화협정은 2개년 인민경제 계획의 성과적 실행을 보장하고 있다
	소위 미국식 민주주의는 착취계급의 착취와 억압을 가리우는 가면이다
제9호 (50.4.20)	우리공화국 공채는 조국의 통일독립을 촉진하며 인민의 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위병 근무수행은 전투임무의 수행이다
	선전원 수책을 어떻게 리용할 것인가
	선전 선동 사업의 의의에 대하여
	창조적 맑스주의의 모범-레닌의 4월 테제에 대하여
	위대한 쏘베트 군대의 영웅들 소개
	소위 ‘유엔 조선위원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제10호 (50.5.1)	5·1절 보고요강
	평화옹호 운동은 날로 장성강화되고 있다.
	5·1절의 간단한 유래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에서의 인민경제의 발전과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표시하는 사실과 숫자들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몰락과 근로자들의 빈궁화를 표시하는 사실과 숫자들
	미 영 제국주의의 앞잡이들은 로동계급의 대렬을 분렬하려고 날뛰고 있다.
제11호 (50.5.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보위상 명령 제0285호
	군정훈련에서 잘 모르는 동무들을 방조하자
	모범군무자를 배우자
	백림 공격전투에서의 영웅적 붉은 군인들의 이야기
	공화국 법전은 인민의 리익을 보위하는 인민의 법전이다
	군사상 범죄에 관한 공화국 형법은 우리 인민군대의 고상한 군무집행질서를 법적으로 보위한다

	리승만 매국역도들은 소위 ‘선가’를 왜 하게 되었는가
제12호 (50.5.21)	동기 전투정치훈련 총검열에서 얻은 경험과 교훈을 살리어 하기 전투정치훈련의 높은 성과를 보장하자
	초급선전원으로서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노력하였는가
	구호와 포스터에 대하여
	영웅적 항일 유격전쟁 사상에 빛나는 로히산 전투
	쏘련에서의 위대한 자연개조
	전쟁 도발자들의 새로운 모험
	남반부 빨찌산들의 주요 전투일지
제13호 (50.6.1)	조국 보위는 공화국공민의 최대 의무이며 최대 영예다
	중대예술오락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예술경연대회의 경험을 살리자
	동기훈련의 경험을 살리며 하기훈련의 보다 높은 성과를 보장하자
	영화와 정치담화에 대하여
	쏘련의 위대한 조국전쟁에서의 공청원들
	6·10만세 운동
나는 왜 의거 입북하였는가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김일성 선집』, 『김일성 저작집』, 『김일성 저작선집』, 『김일성 전집』, 『근로자』,
『선전원수책』, 『정치상학교재』
『노동신문』, 『보위신문』, 『조선인민군』, 『승리를 위하여』

김일성종합대학, 『조선민족해방투쟁사』(1949), RG 242, SA 2007. Beach FEAF
65, Item 7.

내무성 문화국, 『정치상학교재』 제1~2권, 동기전투 훈련기간(하사관 및 전사
조)(1949), Barch 97, Item 15.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 『1949~1950년 동기 전투정치 훈련기간 정치상학 교
육요강』(1950), RG 242, SA 2010, Box 5, Item 117.

_____, 『1950년 하기 전투정치 훈련기간 정치상학 교육요강』(1950), RG 242,
SA 2010, Box 5, Item 116 copy 2.

보안간부훈련 제2소 문화부, 『정치교재』, RG 242, SA 2009, Item 178.

자습용 수검용 『국문해석법』(동방문화사), RG 242, SA 2008, Box 10, Item 115.
제315부대 문화부, 『지령: 신설부대전사들정치상학교육제강』, SA 2010, Item
10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보위성 총참모부, 『기율규정』(1949), RG 242, SA
2009, Box 8, Item 9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보위성 총참모부, 『보병부대 전투훈련강령』 제1
부(민족보위성 군사출판부, 1949년도판).

조선인민군 제181군부대 문화부, 『1950년 하기 전투정치 훈련기간 정치상학
교육강령』(1950.5), RG 242, SA 2010, Box 5, Item 116 copy 1.

『정치교본』, RG 242, SA 2009, Box 8, Item 32.

『정치학론논개요』(1949), RG 242 SA 2010, Box 5, Item 199.

『조선인민의 해방투쟁사』, RG 242, SA 2007, Box 10, Item 58.

『하사관조 상학계획』, RG 242, SA 2007, Item 22.

『해방후조선(강의요강)』, RG 242, SA 2009, Box 7, Item 22.

2. 국내 자료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전쟁사』, 제1권(서울: 국방부, 1977)
- 김광수,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발전(1945~1990),” 북한대학원 편, 『북한군사문제의 재조명』(서울: 한울, 2006).
- _____,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전략, 작전지휘 및 동맹관계”(서울: 북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김광운, 『북한 정치사 연구 1-건당·건국·건군의 역사』(서울: 선인, 2003).
- _____, “북한 정치체제 형성 관련 1945~1950년 출판물에 대하여,” 정영욱 외, 『해방 전후사 사료연구』 II(서울: 선인, 2002).
- 남정욱, “6·25전쟁기 북한의 게릴라전 지도와 수행,” 『전사』, 제6호(2004).
-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제1~2권(서울: 나남출판, 1996).
-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1945~1961)』(서울: 선인, 2005).
-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군사사상사』(서울: 황금알, 2006).
- 아르당 뒤 피크, 『전투연구-고대전투와 현대전투』, 국군정신전력학교 육감(국군정신전력학교, 1986).
- 와다 하루끼, 『김일성과 민주항일전쟁』, 이종석 옮김(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2).
- 이종석, 『조선로동당 연구』(서울: 역사비평사, 1995).
- 이정연, 『북한군에는 건빵이 없다?』(서울: 플래닛미디어, 2007).
- 임영태, “한국현대사의 증언: 6·25와 빨치산-『남부군』 이태와 『빨치산』 이영식의 강연과 토론,” 『역사비평』(1988).
- 서대숙,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주석 옮김(서울: 청계연구소, 1989).
- 서대숙 편, 『북한문헌연구: 문헌과 해제』, 제4권 대외관계 군사 및 안보(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4)
-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1945~1961)』(서울: 선인, 2005).
- 스즈키 마사유키,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유영구 옮김(서울: 중앙일보사, 1994).
- 장세운, “해방 직후 북한학계의 민족해방운동사 인식과 편찬,” 『한국사학보』 제18호(2004).
- 장용훈, “<정찰병> 본격 전쟁영화의 서막,” 『통일한국』, 제17권 제2호(1999).
- 찰스 암스트롱, 『북조선 탄생』, 김연철·이정우 옮김(서울: 서해문집, 2006).
- 한상구, “한국현대사의 증언: 6·25와 빨치산-팔로군 출신 방호산 사단 정치보위부 최태환의 증언,” 『역사비평』, 통권 4호(1988).

Analysis of Distinguished Features and Military Implications of the NKPA's Political Training from 1945 till the 1950

Jang, Sung-Jin(Full-time Lecture, Dep. Military History, K.M.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distinguished features and military implications of the NKPA's political training from 1945 till the breakout of Korean War. The main reason for starting the political training of North Korean soldiers was to reinforce the combat spirit during the war. I find justification for this research in the fact that existing study is rather narrow in its spectrum although NKPA's political training is essential part of their military training. And this paper adopts more of the military viewpoint, seen through systematic and holistic approach that are geared towards looking into the context and process of NKPA's training.

The context of this training is fashioned after the founding history of the armed forces of NKPA and its party with its connection to the anti-Japanese sentiment and military struggle of Kim Il-sung in Man-

churi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national history of its ideal envisioned on the founding of the country. And NKPA has formed the security concept close to that of the Soviet Union including Stalin heroism and Anti-Americanism and fostered the military spirit through making the participants obey imposed disciplines. Within this contexts, the NKPA's political training has progressed into centralization of the planing, various training methods and teaching materials and different train by the class and circumstance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objective of this training was not only political-as to the founding party and the armed forces, but also military-as to achieve victory on the Korean War and to reinforce combat spirit of NKPA. And this paper contends that the structure of this training was of complex system having its rudimentary roots in the Soviet's political training system.

Keywords: Korean War, NKPA's political training, army mental education, Kim Il-sung, anti-Japan struggle(partisan tactics), military regulation